

“강서발전 · 부산발전
힘있는 일꾼, 노무현이 필요합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목 차

1. 노무현, 그는 누구인가	4
● 김해가 낳고, 부산이 키운 인물	
● 정치생명을 걸고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	
● 소신있는 정치인	
● 고졸판사·고졸변호사, 서민의 대변자	
●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 일꾼	
● 차세대 부산대표 정치인	
2. 왜 노무현인가	12
● 강서발전·부산발전, '힘있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 노무현의 강서 비전 : '농촌같은 도시, 도시같은 농촌' 강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3. 노무현은 고향을 위해 그동안 뭘 했나	15
● 종로국회의원시절, 경마장 범방유치·낙동강 수질개선...	
● 부산경제발전을 위해 지난 1년간 이런 일을 했습니다	
1) 신발산업육성을 위한 4,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 녹산공단 땅값을 10% 내렸습니다	
3) 삼성자동차 공장을 다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4) 가덕신항만공사의 조기 착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 강서발전을 위해 지난 6개월간 이런 일을 했습니다	
1) 그린벨트 해제지침 변경	
2) 이주단지 농민들에 대한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면제	
3) 당초 낙동강 수질개선계획에 빠져있던 서낙동강도 포함	

- 4) 강동동 대사초등학교 교사 재건축(예산 57억원 확보)
- 5) 농업용수 보강사업, 예산증액 확보
- 6) 강동하수종말처리장 공사 관련, 강제집행을 막아냄
- 7) 명지 IC공사 관련, 명지시장 진입로 확보
- 8) 마른 김 수매량 3배(2만속 ⇒ 6만속)로 상향 조정
- 9) 가덕대교 내년 착공(설계예산 15억원 확보)
- 10) 천가일주도로사업 조기완공 가능(특별예산 5억원 확보)
- 11) 명지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예산 6억8천만원 확보)
- 12) 김해공항 안전라인에서 제외된 6가구도 이주대상에 포함

● 강서발전을 위해 지금도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1) 지사단지 관련 조속한 보상과 개발 추진
- 2) 낙동중학 다목적 강당 신축예산 국고보조 추진
- 3) 강서 농어민 자녀 중,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추진
- 4) 대저동 일대 배수개선사업예산 176억원 확보 추진
- 5) 대저농협 산지유통센터 건립 추진(총사업비 10억원)
- 6) 신호공단 조성관련, 제외된 이주대상자 구제 추진
- 7) 가덕도 일대 어민들의 한정어업면허 추진
- 8) 대저2동 덕두초등학교 이전 신축 추진

※ 한나라당이 강서를 팔아먹었습니다 24

※ 이럴 땐 이렇게 25

- 사람은 좋은데, 당이 싫다 !?
- 되겠나 !?
- 당선되면 떠날 사람 !?

4. 노무현의 이력 27

1. 노무현, 그는 누구인가

● 김해가 낳고, 부산이 키운 인물

노무현은 이곳 김해에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자란 **본토박이** 김해사람입니다. 김해에서 중학교를 졸업했고, 김해에서 10대째 살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하사받은 9대 할아버지 묘소가 강서구 녹산동 범방에 있습니다.

노무현은 부산상고를 졸업하고 부산에서 변호사활동을 하다가 부산에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청문회스타' 소리도 들었습니다.

14대 국회의원선거와 부산시장선거에서 연거푸 떨어졌지만 부산시민들의 높은 지지로 전국적 인물이 되고 마침내 정치1번지 종로의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부산시민의 자존심을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 정치생명을 걸고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

정치1번지 종로는 누구나 탐내는 명예로운 자리입니다.

다음은 서울시장도 바라볼 차례입니다.

그러나, 노무현은 이 좋은 자리도 버리고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모두들 당선되기 쉬운 지역을 찾아다니는데, 노무현은 당선이 확실한 자리를 버리고 당선이 어렵다고 하는 이곳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왜 이곳으로 왔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역구도 극복을 위해서 왔다고도 하고,

차기 대통령 출마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왔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이유보다도
 노무현은 고향발전을 위해 돌아왔습니다.
 파탄지경인 부산경제 회생에 기여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객지에서 성공하고 보면 고향에 와서 일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부산발전을 위하여 여당이 있어야 된다.
 힘있는 일꾼이 있어야 된다.”

종로에서 당선되고도 고향을 위해 일한 사람

노무현은 한시도 고향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종로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자마자 바로 고향을 위해 일했습니다. 98년도 예산
 당정협의에서 부산과 김해의 예산을 위해 뛰었습니다.

경마장 유치, 낙동강 수질개선, 김해 진영택지개발지구 지정, 삼성자동차 재가동,
 신항만 조기착공, 녹산공단 분양가인하...



김해 일, 부산 일이라면 발벗고 나섰습니다.

앞으로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낳아준 곳, 키워준 곳을 위해 열심히 일해 보고 싶습니다.

고향에서 다시 한번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 성공하여 전국적인 정치지도자가 되어
고향을 더 크게 빛내고 더 크게 발전시켜 보고 싶습니다.

● 소신있는 정치인

노무현에게 기회와 유혹은 많았습니다.

눈 한번 질끈 감으면

감투와 명예, 돈 가질 기회가 많았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은 쉽고 편한 길을 갑니다.

그러나, 노무현은 아무리 쉽고 편한 길이라도

대의와 명분에 어긋나면 결코 가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좇아 왔다갔다 하지 않았습니다.

돈 앞에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5공비리 청문회때 남들처럼 “정주영 회장님”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았 습니다.

왜 돈이 아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노무현은 돈 앞에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두쪽이 나도, 길이 아니면 가지 않았습니다

김영삼씨가 3당합당할 때 따라갔으면, 쉽게 당선되고 여당이 되어 승승장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길이 아니기에 가지 않았습니다.
뱃지에 연연해 줄서기 하지도 않았습니다.
보스 정치에 끌려다니지도 않았습니다.

95년 부산시장선거 직전, 조순씨가
“이번에 서울부시장 하고, 다음에 서울시장 하라”고 했습니다.
그 안전한 길을 피하고 부산시장에 도전했습니다.
부산을 사랑하고 능력있는 인물이 쓰러져가는 부산을 살려야겠기에 노무현은 나섰
습니다.
노무현은 떨어지고, 돌아온 것은 ‘시장 뇌물파동’ 과 ‘부산경제파탄’ 이었습니다.

욕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인은 언론에 특히 약합니다. 약점이 많기때문입니다.
그러나, 노무현은 대한민국 최대의 부수를 자랑하는 조선일보를 상대로 당당히
소송을 했고, 승리했습니다.

한다면 하는 사람,
안 할 일은 안 하고 할 일은 확실히 하는 사람, 노무현
이번 16대 총선에 또 부산에서 출마합니다.
부산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노무현을 제대로 평가해 줍시다.
일할 기회를 줍시다.

● 고졸판사 · 고졸변호사, 서민의 대변자

가난때문에 대학은 포기했지만 공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졸 학력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고졸판사 · 고졸변호사’ 가 되었습니다.

판사, 변호사 마음만 먹으면 잘먹고 잘 살 수 있는 직업입니다.

그러나, 돈벌이 보다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돈도 없고 뺨도 없고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하소연할 데 없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변론에 나섰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말하다가 짓밟힌 노동자들,

전두환 군사독재와 맞서다가 박해받는 청년들,

그들을 위해 권력과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가기도 하고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권변호사”, “서민의 대변자”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어서도 국회 노동위원·농수산위원으로 노동자·농민을 위한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종로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지 10일만에 울산 현대자동차과업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공권력으로 노동자들을 짓밟아서는 안된다는 생각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공권력투입없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강서에 와서는 “민원해결사” 소리를 들을 정도로 ‘서민용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 일꾼

노무현은 집권여당의 부총재가 되어서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신발산업육성, 삼성자동차 재가동, 녹산공단 분양가인하 등 굵직 굵직한 주요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부처 장·차관,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은 물론이고 대통령과도 단독면담을 하면서 토론하고 설득하여 일을 성사시켰습니다.

가능성이 곧 힘입니다.

대통령이 아무하고나 단독면담을 하지는 않습니다. 꽤 가능성있는 차기 지도자로 거론되는 노무현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싫든 좋든 앞으로 3년간은 이 정부의 힘을 이용해야 합니다.

야당 초선의원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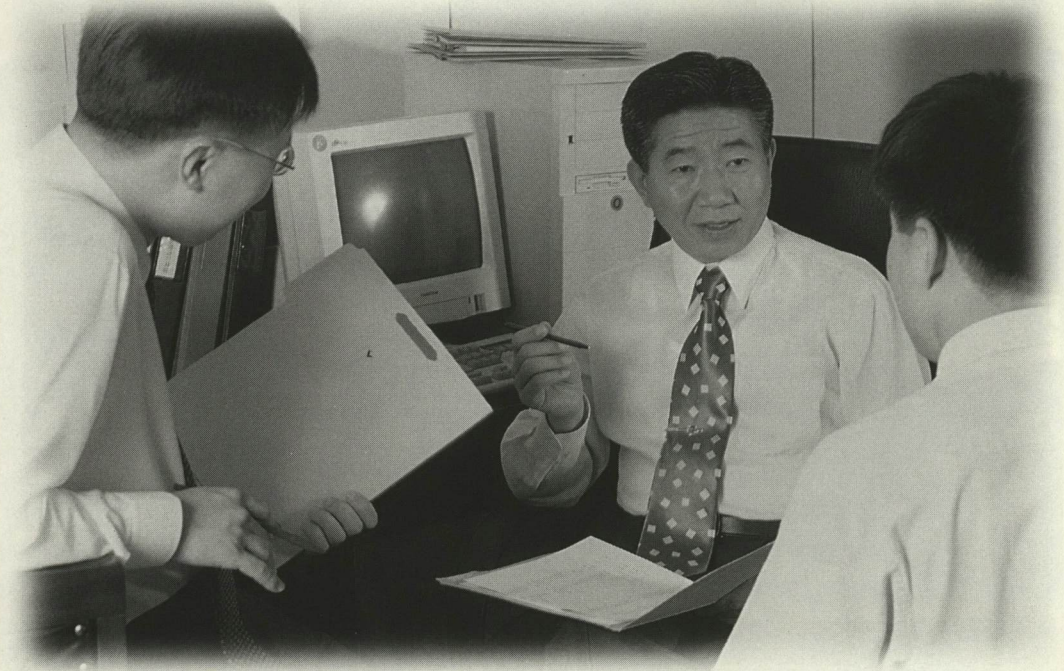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습니다.

노무현은 일을 해결하기 위해 '삼고초려' 하듯 정성껏 사람을 만나, 마침내는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입니다.

논리로 실무진부터 설득하여 일이 잘 되게 합니다.

전화 한 통화로 만사 해결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노무현은 실무공무원부터 만나 논리로 차근차근 일을 풀어나가는 사람입니다.



● 차세대 부산대표 정치인

2년 뒤 다시 대권경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나설 것입니다.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그 때 구경만 할 겁니까?

우리 고향 사람 노무현은 '차세대 지도자' 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그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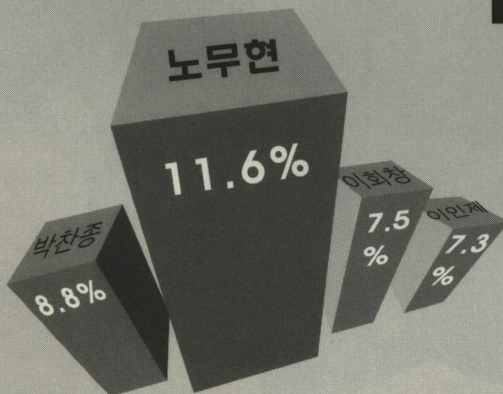
한겨레21조사(99. 6)에서도 이회창, 이인제씨를 제치고 차세대지도자 1위였고, 부산일보조사(99. 9)에서도 이회창, 이인제씨를 제치고 선호하는 정치인 1위였고, 인텔리서치조사(99. 4)에서도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차세대 지도자 1위였습니다.

이제 냉정하게 그리고 차분히 멀리 내다보고 부산의 인물을 키워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노무현,

이곳 강서에서 우리 강서 주민들이 한번 멋지게 키워줍시다.

10



■ 전국적으로 3김씨와 박태준씨를 제외한 정치인 중 선호하는 정치인을 묻는 질의 항목에서

1위	노무현	11.6%
2위	박찬중	8.8%
3위	이회창	7.5%
4위	이인제	7.3%

- 부산일보 99. 9월 조사 -

한겨레

1999/7/1
제264호 권 2,500원



대중이 선호하는 차세대 리더십
노무현 1위
이회창 2위, 이인제 3위

한겨레신문사



■ <한겨레21> 1999년 7월 1일자 표지

2. 왜 노무현인가

● 강서발전 · 부산발전, '힘있는 일꾼' 이 필요합니다

30년 동안 묶여있던 그린벨트가 대폭 해제되게 되었습니다.

어느 지역을 해제할 것인지, 해제된 지역을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 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시작이 반', 밑그림을 잘 그려야 합니다.

강서주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 진정 그린벨트정책의 최대 피해자였던 강서주민이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되고 개발되어야만 합니다.

강서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강서구의 계획과 중앙부처의 계획, 부산시의 계획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3자의 입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이 필요합니다.

건설교통부, 부산시, 강서구청, 이 3자의 입장을 강서주민의 입장에서 조정하고 타협을 이끌어내는 일은 정치초보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중요한 일은 적어도 현대자동차 파업사태같은 엄청난 노사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해내고 타협을 이끌어 낸 힘있고 경륜있는 정치인, 노무현에게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 노무현의 강서 비전

- '농촌같은 도시, 도시같은 농촌'
- 강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개발사업과 도시화가 강서 미래의 전부는 아닙니다. 잘못된 개발은 강서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더 파괴할 수 있습니다.

농업기반환경을 전면 개선해야 합니다.

서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농로와 용·배수로 확충, 경지정리 등 농업기반을 정비해야 합니다. 수출농가를 육성하고 농업 기술을 개발하며 농업 현대화를 지원해야 합니다.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는 일 또한 서둘러야 합니다.

“농촌같은 도시, 도시같은 농촌”

지금의 삶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강서를 지금보다 살기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 지금의 강서주민이 이곳 강서에서 더 편안하게 살게 만드는 것, 이것이 노무현이 생각하는 강서의 미래입니다.

강서를 전국에서 최고로 살기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욕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명성보다는 우선 기본을 제대로 하고 싶은 것입니다.

도로를 제대로 정비하고, 곳곳에 마을버스도 다니고, 배수시설도 정비하고, 병원도 들어서고, 백화점도 생기고, 그럴듯한 종합문화회관이나 영화관도 생기고... 다른 곳에 비해 큰 불편없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강서를 만들고 싶습니다.

동북아의 중심, 부산의 미래가 강서에 있습니다

강서는 ‘신이 부산의 미래를 위해 남겨둔 축복의 땅’ 이라고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강서에는 도시가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공항이 있고, 항만이 있고, 산업단지와 주택단지, 농지와 관광휴양단지가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사양화 되고 있는 부산을 다시 일으킬 곳은 이곳 강서 뿐입니다.

강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가덕도에는 신항만이 들어서게 되고, 그 주변은 항만 배후 물류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부산시민 가운데 항만과 관련된 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20%이상입니다. 신항만이 들어서면 그 범위는 훨씬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가덕도에 해양 종합 휴양단지가 들어서는데 계획이 남해안 관광벨트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덕대교와 천가일주도로도 곧 만들어집니다.

녹산, 신호, 지사 산업단지에 일만 여 업체가 입주하게 됩니다.

노무현의원은 산업단지공단과 협의하여 입주업체들이 지역주민들을 우선 고용하도록 구청과 협정을 맺을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해공항이 확장되고 주변일대가 물류,업무단지로 개발됩니다.

동·서낙동강 주변은 관광단지, 스포츠위락단지, 전원주택단지로 조성됩니다.

명지주거단지가 활성화되고, 대저동 등 현재의 택지는 도시계획에 따라 전면 재개발되어 각종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제 강서는 완전히 새로운 도시가 됩니다.”

개발사업과 도시화가 강서 지역의 전부는 아닙니다. 잘못된 개발은 강서주민들의

3. 노무현은 고향을 위해 그동안 뭘 했나

● 종로국회의원시절, 경마장 범방유치 · 낙동강 수질개선...

노무현은 한시도 고향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고향에 돌아오기 전부터 고향을 위해 일했습니다.

위천공단과 함께 발목이 잡혀 진척이 없던 낙동강 수질개선문제를 청와대 · 국무조정실 등과 협의하여 별도로 분리시켜, 환경부가 낙동강 수질개선계획을 신속히 세우게 했습니다.

경남 진해로 갈뻔한 경마장을 우리 강서 녹산 범방에 유치했고, 부산컨벤션센터 건립 국비예산 10억원 확보, 부산국제영화제 개최 국비예산 10억원 확보, 김해 진영 택지개발지구 지정, 본산배수개선사업, YWCA 일하는 여성의 집 건립지원 등 많은 일을 했습니다.

당선은 서울 종로에서 났지만, 항상 고향을 잊지 않고 일해 왔습니다.

● 부산경제발전을 위해 지난 1년간 이런 일을 했습니다

1) 신발산업육성을 위한 4,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신발산업,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신발업계와 부산시는 된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부산 전통산업인 신발산업을 이제는 고부가가치의 지식산업으로 바꿔 다시 한번 부산신발의 영광을 찾고자, 노무현의원은 동분서주했습니다. 작년 2월부터 12월 예산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부산신발산업 육성계획을 붙들고 마침내 관철시켰습니다. 부산의 대부분의 신발업체들이 녹산공단 4만평부지에 들어갈 예정이고, 강서구

부산서여상이 신발특성화 고교로 새롭게 바뀐 것도 바로 부산신발육성산업에 포함 된 것입니다.

2) 녹산공단 땅값을 10% 내렸습니다

녹산공단을 만들었는데 공장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땅값이 비싸기 때문이었습니다. 땅값이 싸야 공장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야 일자리도 많이 생깁니다. 노무현의원은 녹산공단 분양가 인하가 부산경제 회생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건설교통부,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들을 설득하여 마침내 분양가를 10% 내리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42%이던 공단분양율을 72%로 끌어 올렸습니다.

3) 삼성자동차 공장을 다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자동차산업은 고용효과가 대단히 높은 산업입니다. 신호공단 삼성자동차공장의 가동이 중단되자 부품협력업체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량실업사태에 이어 부산경제의 추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제3자 인수후 삼성자동차공장은 계속 가동되어야 하며, 제3자 인수때까지 한시적으로라도 가동해야 한다는 것이 부산시민의 한결같은 요구였습니다. 이에 노무현의원이 채권은행단·청와대 관계자들을 설득하여 결국 삼성자동차를 재가동시킨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 르노사가 삼성차를 인수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하기전에, 르노사의 인수결정에도 노무현의원은 한 몫 했습니다. 이제 삼성차 해외매각이 곧 성사되면 부산은 자동차생산의 전진기지로서 다시 한번 도약할 전망입니다.

4) 가덕신항만공사의 조기 착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가덕신항만공사와 관련한 업체간의 이해다툼이 법정소송으로까지 번져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노무현의원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과 조기착공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조만간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 강서발전을 위해 지난 6개월간 이런 일을 했습니다

1) 그린벨트 해제지침 변경

당초 건설교통부의 그린벨트 해제지침은 환경평가결과 1등급에서 5등급 중 1등급지와 2등급지는 해제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강서 지역은 해제 지역이 띄엄띄엄 쪼개져 사실상 계획적인 개발이 불가능하게 될 뻔했습니다.

노무현의원은 건설교통부 및 청와대까지 설득하여 필요하다면 1,2등급지까지도 합리적 계획에 의해 개발할 수 있도록 강서의 특수성을 무시한 지침을 고치게 했습니다.

올해안에 강서구와 부산시, 건교부의 실무계획이 확정됩니다. 이 확정된 계획에 따라 30년동안 그린벨트가 해제됩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외지인들만 득을 볼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더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노무현의원은 이런 문제들도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2) 이주단지 농민들에 대한 농지조성비 · 전용부담금 면제

농지를 농사짓는 대신 다른 용도로 전용하면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공항로 확장공사라는 공공사업으로 철거당한 농민들의 이주단지조성사업

에 대해서 농림부는 감면혜택없이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을 다 내라고 했습니다. 농민들과 강서구청은 백방으로 노력하여 봤지만 길이 없었습니다.

노무현의원은 농림부장관과의 면담, 국회청원소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면제받게 했습니다.

녹산 31세대, 용두 37세대, 맥도 50세대 등 총 118세대가 가구당 1천만원 내외의 면제혜택을 받고, 본리지구 52세대, 신소지구 38세대, 등구지구 28세대, 진목지구 15세대, 성산지구 50세대 등 183세대가 추가로 면제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3) 당초 낙동강 수질개선계획에 빠져있던 서낙동강도 포함

깨끗한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서낙동강은 농업용수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할 정도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낙동강수질개선계획에 서낙동강이 빠져 있었습니다.

노무현의원이 환경부와 협의하여 서낙동강도 2005년까지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4) 강동동 대사초등학교 교사 재건축(예산 57억원 확보)

노무현의원은 건물이 낡고, 비가 조금만 와도 물에 잠겨버리는 대사초등학교 건물 재건축예산 57억원을 국고보조예산으로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중이며, 올해 7월중으로 착공되어 내년 2학기에는 우리 자녀들이 초현대식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5) 농업용수 보강사업, 예산증액 확보

강동동일대 화훼·원예 농가를 위한 농업용수 보강사업 예산 2000년도분은 4억여 원밖에 안 됐습니다.

이 정도로는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노무현의원은 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해 올해 예산을 15억원으로 증액시켜 확보했습니다.

6) 강동하수종말처리장 공사 관련, 강제집행을 막아냄

강동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관련하여 부산시와 강동 주민의 이견과 갈등이 심각했습니다. 부산시가 강제집행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노무현의원은 '조건부 반대' 하는 주민과 강제집행하려는 부산시 사이의 갈등과 이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부산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사강행을 위한 강제대집행은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물론, 방류관거의 위치결정, 14가구의 이주대책 등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노무현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 관심을 갖고 합리적 조정을 해 나갈 것입니다.

7) 명지IC공사 관련, 명지시장 진입로 확보

주민들이 명지IC공사와 관련하여 동네가 3분되는 교통불편을 겪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150여 헥타르가 모여 있는 명지시장의 타격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노무현의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산시장을 만나 하단하구언에서 신포마을로 직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명지다리앞에 U턴차로를 개설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8) 마른김 수매량 3배(2만속⇒6만속)로 상향 조정

수협중앙회에서는 99년 부산의 마른 김 2만속을 수매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명지동 일대 주민과 김 가공공장 경영주들이 김 수매량을 늘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노무현의원은 해양수산부 및 수협중앙회 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2000년 6만속 수매를 약속받았습니다.

9) 가덕대교 설계예산 15억원 확보

가덕도 주민들은 그동안 배를 이용하여 육지를 오가는 큰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당연히 육지와 연결가능한 다리건설을 요청해 왔습니다.

노무현의원은 부산시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착공을 2000년으로 앞당길 것을 요구했으나, 다리공사구간이 철새도래지여서, 올해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과정을 거쳐, 내년에는 사업에 착공한다는 확답을 받아냈습니다.

물론, 설계예산 15억원은 이미 확보했습니다.

10) 천가일주도로사업 조기완공 가능(특별예산 5억원 확보)

가덕도 주민들은 섬내에서의 이동에도 큰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노무현의원은 천가일주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예산중 15억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시켰고, 별도로 5억원의 특별예산을 확보하여 조기완공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11) 명지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예산 6억8천만원 확보)

다목적 강당이란 학교강당뿐만 아니라 동네주민여러분의 여러 가지 행사에도 사용되는 다용도 강당입니다.

명지초등학교 총동창회에서 다목적강당 건립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노무현의원은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6억8천만원의 국고보조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12) 김해공항 안전라인에서 제외된 6가구도 이주대상에 포함

김해공항 안전녹지대라인 공사와 관련한 이주대상에서 대저 6가구만 제외되었

습니다.

마을공동체가 파괴되고, 6가구만 고립시키는 것은 인간다운 삶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노무현의원은 부산지방항공청 및 건설교통부 관계자를 만나, 설득하여 6가구도 이주대상자에 포함시켰습니다.

● 강서발전을 위해 지금도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지사단지 관련 조속한 보상과 개발 추진

지사동 주민들은 지난 8년간 지사단지문제로 재산권행사는 묶인 채 보상약속도 지켜지지 않아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노무현의원은 대통령께서 부산방문시 조속한 보상과 사업착수 약속을 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3월부터 보상이 진행될 예정이고, 내년중에는 착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노무현의원은 부산시로부터 가압펌프시설, 하수종말처리장시설비용 174억원을 부담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2) 낙동중학 다목적 강당 신축예산 국고보조 추진

노무현의원은 대저1동 낙동중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예산중 10억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3) 강서 농어민 자녀 중,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추진

노무현의원은 국회 교육위원으로서 교육부 및 대통령께 건의하여, 전국 저소득층 중고생자녀 학자금지원자금 3,2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의료보험료 3만원이하 가정의 자녀 전원에 대해서 학자금 면제 혜택을 받게 했습니다.

또한, 강서구는 부산시에 속하지만 사실상 농어촌지역이므로, 강서 농어민 자녀

전원도 학자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중입니다.

4) 대저동 일대 배수개선사업예산 176억원 확보 추진

대저동 일대 주민들은 그간 농지침수문제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배수개선사업 예산 176억원이 확보되면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노무현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이 되지 않고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림부 및 농업기반공사(구 농지개량조합) 관계자와 수차례 협의중에 있습니다.

5) 대저농협 산지유통센터 건립 추진(총사업비 10억원)

대저농협 산지유통센터가 건립되면 방울토마토,썩갓,국화 등을 재배하는 농민들의 저온저장, 선별작업에 도움이 됩니다.

노무현의원은 산지유통센터 건립 문제에 대해 농협중앙회와는 이미 합의를 끝낸 상태이고, 이제 부산시와의 합의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6) 신호공단 조성관련, 제외된 이주대상자 구제 추진

노무현의원은 신호동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세입자 택지분양 및 이주대상자에서 행정상의 문제로 제외된 4세대를 구제하는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호공단 조성에 따른 피해자인 사암마을 주민 14명의 이주단지 입주권 요구 민원에 대해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중입니다.

7) 기덕도 일대 어민들의 한정어업면허 '추진

신항만공사와 관련하여 이미 보상은 받고 어업권은 소멸됐지만 공사가 시작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어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어민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노무현의원은 이에 대해 '한정어업면허' 추진문제를 놓고 부산시 및 강서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8) 대저2동 덕두초등학교 이전 신축 추진

공항로확장공사사업으로 인하여 덕두초등학교 건물 및 운동장을 포함하여 학교 전체의 3분의 1정도가 도로에 편입됩니다. 학교의 시설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입니다. 노무현의원은 주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인근의 적정한 지역에 학교를 이전하여 신축하는 방안을 부산북부교육청 및 부산시 교육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일 잘할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그동안 부산의 아담의원들이 부산민...
 할 수 있겠습니까?
 무소속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
 ...



한나라당이 강서를 팔아먹었습니다

선거구가 조정됐습니다.

강서구 인구가 부족하다고 북구의 덕천2동에 이어 화명·금곡까지 합쳤습니다.

화명·금곡의 인구가 강서구보다 더 많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강서에는 할 일이 태산인데,

강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일꾼이 없어졌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국회의원 뺏지 한번 달아보겠다고, 한나라당 지구당위원장이란 사람이 강서를 팔아 먹은 것입니다.

24

釜山日報

부산일보

1월 19일
2000년
수요일
음력 12월 13일

‘북·강서 선거구 조정 마땅’

북·강서 갑 28만5천명·북·강서를 8만6천명
하태열씨 북·강서 을에 화명 금곡 포함 주장
노무현씨 “지역 대표성·정서 훼손” 불가 입장

아 공천경쟁자 사이도 이견

“해운대·기장지역 보다 인구편차가 더 큰 북·강서지역은 왜 재조정하지 않나요?”

선거구 획정위가 본격 가동된 가운데 한나라당 북·강서갑(위원장 정형근)과 북·강서를(위원장 하태열)지구당도 선거구 조정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허 위원장 등이 선거구 재조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농촌지역인 강서보다 도심지인 북구에서의 한나라당에 대한 정서가 여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 북구 일부지역을 포함시켜 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지역 선거구 조정대상인 해운대·기장갑

과 해운대·기장을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2대1인 반면 북·강서갑과 북·강서들은 이 보다 더 높은 3.3대에 달한다는 것이 내세우는 명분.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의 북·강서갑 선거구의 인구는 지난해 9월말 현재 28만5천명인 반면 국회의원회 노무현 의원의 북·강서을의 인구수는 8만6천명.

때문에 한나라당측은 인구 편차를 줄이기 위해선 현재 북구의 덕천2동(인구수 2만2천여명)과 강서 전역이 포함된 북·강서를 선거구에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는 금곡동과 화명동(인구수 10만여명)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국회의원회 노무현 의원은 “강서의 지역 대표성과 지역 정서등을 감안, 현행으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선거구의 현행유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공천 경쟁자들 사이에서도 선거구 획정 범위에 대해선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한나라당 북·강서를 하태열 위원장은 “표의 등가성이란 헌법 정신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북구와 강서지역 선거구 조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당 지도부에 요청했다.

반면 강서 토박이로 북·강서에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한 안병해씨는 19일 배웅기 강서구청장에게 건의문까지 제출, “일각의 북·강서를 선거구 재조정 주장은 강서구의 독립성과 특수성을 무시한 발상”이라면서 “강서구의 회 등 강서구 주민들이 그냥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봉진·손영신기자)

이럴 땐 이렇게

● 사람은 좋은데, 당이 싫다 !?

사람은 좋은데, 당이 싫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보고 뽑으면 됩니다.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 당이 하지 않습니다.

일 잘할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그동안 부산의 야당의원들이 부산을 위해 뭘 했습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무소속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싫든 좋든 이 정부가 앞으로 3년은 갑니다.

3년동안 부산을 위해 중앙정부의 힘을 끌어 오고 일할 사람은 노무현뿐입니다.

● 되겠나 !?

“노무현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정서 때문에 어려울 거라고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산정서가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줍니까?

되어야 할 사람이 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일 할 사람에게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강서를 위해서, 부산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노무현이 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좋습니다.
강서발전·부산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됩니다.
이제, 될 것을 걱정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면 반드시 됩니다.

● ‘당선되면 떠날 사람’ !?

안 떠납니다! 못 떠납니다!
노무현은 대한민국 정치1번지 종로의 영예를 포기하고,
뿌리를 찾아 일을 하러 고향에 돌아온 사나이입니다.
다른 곳 선거에서 떨어지고 강서로 온 철새가 아닙니다.
지금보다 더 큰 인물이 되면, 지역을 위해 더 큰 힘이 될 겁니다. 고졸출신의 인권변
호사, 두 번의 낙선과 좌절을 딛고 일어서 대한민국 정치1번지 종로에서 재기한
정치인, 쉽고 편한 길을 마다하고 고향을 위해 일할려고 달려왔습니다. 어렵고 험하
더라도 옳은 길이라면 앞서서 걸어 온 사람이 노무현입니다. 반드시 보답할 겁니다.

“노무현 말고 어떤 정치인을 믿어 보시겠습니까?
노무현을 믿고 도와 주십시오.”

4. 노무현의 이력



1946년 경남 김해 출생

1960년 경남 김해 진영 대창초등학교 졸업

1963년 경남 김해 진영중학교 졸업

1966년 부산상업고등학교 졸업

1975년 제17회 사법고시 합격

1977년 대전지방법원 판사

1978년 변호사

1987년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 부산본부 상임집행위원장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1993년 통합민주당 최고위원(최연소)

1993년 사단법인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소장

1997년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

1998년 제15대 국회의원

1999년 동남지역발전특별위원장

1999년 새정치국민회의 부산 북구·강서구(을)지구당위원장

2000년 새천년민주당 부산 북구·강서구(을)지구당 조직책

2000년 새천년민주당 지도위원

새천년민주당

부산광역시 북구 · 강서구(을) 지구당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2377-12
☎ 051) 971-0001